성폭력 예방 캠페인 불교계도 동참

최근 여성과 아동 성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가 주축이 돼 여성 · 아동 성폭력 근절에 나섰다.

'경상북도 아동 · 여성보호 지역연대'(위원장 김장주, 보건복지부 여성국장)는 7월 20일 김천역 광장 및 평화로 일대에서 '아동 · 여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장 진원 스님,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진오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김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아이 · 여성들이 안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만들기 결의문이 발표됐으며, 이홍화 서예가가 '아이가 안전한 세상 만들기' 서예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진원 스님은 이날 결의문에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청소년쉼터운영,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돼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단일민족 강조는 시대착오"

한국종교연합 '다문화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 포럼

영담 스님이 7월 21일 열린 포럼에서 다문화 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성 목사, 영담 스님, 박종화 목사, 이원규 교수, 손장권 교수.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그에 대한 종교인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은 7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문화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연합 박남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가 되는 길목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것이 다문화 가정 문제이다"며 "다문화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의 배후에 종교도 갈등구조의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종교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영담 스님과 이원규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해성 목사와 손장권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다문화 사회 발전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영담 스님은 "다문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의 근원은 바로 사회적 편견에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 편견을 일으키는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버리자"고 주장했다.

이어 영담 스님은 "그동안 우리는 단일민족, 배달민족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에게 이중적 잣대를 갖다댔다. 급변하는 지구촌 사회에서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배타적 사고와 편협한 자세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면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사회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원규 감신대 종교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원적 사고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데 동의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박탈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종교인의 책무이다. 한국 종교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배려와 돌봄에 앞장서고, 다문화 자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해성 목사는 "이주민을 위한 종교기관의 지원활동 요청 및 조직구성과, 종교기관이 적극적으로 이주민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해성 목사와 손장권 고려대 교수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길을 종교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태고종 보광사 대웅전 낙성법회 봉행

태고종 보광사(주지 지영)는 7월 11일 대웅전 낙성법회 및 사왕명부전 지장보살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혜초 종정스님, 종회의장스님, 문도회장스님, 경북종무원장스님, 성주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증명법사 혜초 스님은 "가야산 자락 좋은 가람인 이곳 성주 지역에 부처님 한분이 또 환생하셨다. 부처님 법을 따라 밤낮으로 더욱 용맹정진 수행정진하라"고 법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상북도 운문사 만세루 유형문화재 지정

'청도 운문사 만세루(사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7월 14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청도 운문사 만세루(淸道 雲門寺 萬歲樓)'는 도 유형문화재로, '청송 송만정(靑松 松轡亭)'은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했다.

또 '칠곡 송림사 대웅전(漆谷 松林寺 大雄殿)'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해 30일간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청도 운문사 경내에 위치한 만세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一자형'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1105년(고려 숙종10) 원응 국사가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건립시기는 최근 대웅전 해체수리 시 발견된 기와 명문과 상량문을 통해 17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경기문화재단 천흥사 동종 종각공원 조성

고려 최대 동종 천흥사 동종 제작 1000년을 맞아 남한산성에 종각공원이 조성된다. 경기문화재단(대표 권영빈)은 7월 19일 남한산성에 종각 공원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보 제208호 성거산 천흥사 동종은 고려시대 최대 크기의 동종으로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으로 옮겨진 이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전시실에 소장 · 전시돼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행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천흥사 동종을 모델로 새 종을 제작, 조성되는 종각광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종 제작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원광식씨가 맡는다.

노덕현 기자

태고연구원 '태고와 석옥' 출판법회

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이사장 무공)은 태고보우국사 탄신 709주년을 맞아 7월 26일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법당에서 평전 '태고와 석옥' 출판법회를 봉행했다. 평전 '태고와 석옥'은 보우 국사의 발자취와 어록 등에 대해 연구 · 조사한 400여 쪽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대륜불교문화태고연구원은 2008년 중국정부와 함께 중국 천호암 사지에서 '태고보우 헌창기념비'를 건립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화요강좌-박대현 관장

"고서 수집 안목부터 갖춰야"

"고서란 것은 그 주인이 가치를 알고, 그것이 활용될 때만이 빛을 발합니다."

박대헌 영월책박물관 관장(55 · 사진)은 7월 20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화요강좌에서 고서 수집의 목적을 강조했다.

박 관장은 25년간 고서와 동고동락한 고서전문가로 광화문 고서점 호산방 프레스센터 본점과 파주출판도시 지점을 두고 있다. 1999년에는 강원도 영월에 폐교를 개조한 영월책박물관을 설립해 9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강좌는 최근 박 관장이 펴낸 '고서이야기'에 대한 저자 해설 강좌로 고서박물관의 애로점, 고서 수집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갖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박 관장은 이날 △(구입하고자 하는) 책을 조심스럽게 살필 것 △책의 흠결을 말하지 말 것 △값을 흥정하지 말 것 △진본은 무리해서라도 살 것 △구입 후 무르지 말 것 △양보다 질을 추구할 것 △타인의 평가보단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 할 것 △수집을 소문내지 말 것 △관심분야만 살 것 등 고서수집에 앞서 유념해야할 수칙을 밝혔다.

박 관장은 "나중에는 모은 고서를 학계나 박물관 등에 기증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다문화 가정 서로 알면 만사 OK

한국종교연합(대표 박남수)은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7월 22~23일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종교문화역사 기행(이하 종교문화역사 기행)'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종교문화역사 기행은 한국의 각 종교시설과 교사(敎史) 문화 현장을 방문해 한국 문화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열렸다.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대표 정호)의 아이들과 결혼 이주 여성 25명은 23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했다. 김남희 교사는 방문단에게 불교와 사찰 구조, 법구,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종교연합 명신옥 실장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 언어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선주 · 사진=박재완 기자

직할교구신도회 창립

조계종 포교원 준비 착착

조계종 신도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룰 신도회가 조직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현수 · 이하 직할교구신도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8월 15일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법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조계사 이연숙 신도회장과 도선사 이현수 신도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준비위원은 한마음선원(박종수 신도회장), 금강정사(권태근 신도회장), 사자암(임순자 신도회장), 화계사(장용숙 신도부회장), 진관사(심대근 아버지회 회장) 신도회장 등 모두 9인이다. 직할교구신도회 창립발기인 총회에서는 이현수 도선사 신도회장이 직할교구신도회 회장에,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에 내정됐다.

박선주 기자